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 金 東 柱

1. 머리말
2. 제주지역 호적제 운영의 실상
3.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
4.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성격
5. 맺음말

**제주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오늘날에는 주민의 주거관계와 인구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민의 전체적인 인구조사 기능은 통계조사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이를 위해 매 3년마다 호적이 작성되었다. 삶이 어려운 백성들은 국가에 부담해야 할 특산물의 진상이나 군사적인 임무 또는 잡다한 명목의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호적에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세력들은 호적 업무를 맡은 관리들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호적의 職役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많은 재정의 확보, 또는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에 주민의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하여 호적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나갔다.

결국, 조선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호적자료이다. 물론 최근 호적자료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직역이 의도적으로 冒錄 혹은 漏戶·漏口된 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적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즉 한 가문이나 마을, 나아가 군현별 주민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 호적자료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호적자료로 그 동안 주목되어 온 것은 호구단자·준호구·호적중초·호적대장 등이다.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한 가문의 역사적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호적중초는 마을 주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적대장은 당시 국가의 입장에서 郡縣民에 대한 주민 지배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촌사회의 신분구조, 호구의 구성 및 신분계층의 변동, 가족구성, 혼인관계 등 향촌사회의 제반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호적중초는 丁若鏞의 지적처럼 ‘臺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KRF-2001-B00016)

帳에 비하여 더 사실에 가까운 내용'1)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호적중초의 대부분은 현재 제주도 각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고는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호적중초의 실태를 살펴보고 호적중초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도 호적중초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옛 대정현 지역의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²⁾ 그러나 당초 대정현 모든 마을의 호적중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호적중초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³⁾ 또한 호적중초와 함께 각 마을에는 호적중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면서도 표지에 統籍이라 기재된 자료와 일제시대 민적부 자료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대정현 지역이었던 11개 마을, 즉 대포리, 덕수리(자단리), 도순리(돌송리), 동성리(안성리), 사계리(금물로리), 월평리, 일파리, 중문리, 하모슬리, 하원리, 회수리(도문리) 호적중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지역 호적제 운영의 실상

조선시대의 호적은 3년에 한 번 개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각 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 차례 관에 제출하는 것이 호구단자이고, 관으로부터

1) 『牧民心書』 戶典 六條, 第四條 戶籍條.

2) 대정현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도두리, 장전리, 상기리, 중업리, 신흥리 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부분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 호적중초의 구체적 내용을 시기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자료의 정리 및 복원 없이는 성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3)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호적중초는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것이다. 보편적으로 마을리사무소에 보관된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마을 鄉長이 관리 하에 있다. 따라서 호적중초에 대한 절대적 권한은 마을 향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부 마을의 호적중초는 향장 개인 집을 전전하면서 보관되다가 마을리사무소로 옮겨진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호적중초의 열람은 향장의 주도 하에 마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열람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짧은 시일에 제주도 전지역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터 原籍(호구대장에 준해서 등급받는 것이 준호구이다. 호주는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해당 읍에 보내지고, 해당 읍에서는 舊戶籍臺帳 또는 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統·戶를 구분한 후에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돌려 보내어 각 집에 보관케하고 1부는 帳籍을 개수하는 자료로 이용하였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서식상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분이 된다. 즉 준호구는 年號, 戶主妻의 4조 및 가족상황을 連書하는 반면에 호구단자는 干支를 사용하며 4조 및 가족상황을 別行으로 쓰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백성들이 소송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소유의 자료로서 혹은 신분 유지의 자료로서 관으로부터 원적에 준해서 이루어진다.

통적은 統(5호 1통, 혹은 10호 1통) 단위로 작성된 호적으로 호적중초와 함께 마을에 보관되어 있다. 호적중초는 마을 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그 각 기관에 보관하면서 모든 업무에 참고하였다. 호적대장은 호구기록에 관한 자료를 군현, 즉 제주도를 예로 들면 제주목·대정현·정의현 관청에서 각각 책으로 엮어 보관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호구단자·준호구·통적·호적중초는 많이 확인되고 있으나, 군현단위로 작성되었던 호적대장은 확인된 바가 없다.

호적은 式年이라 부르는 연도, 즉 子·卯·午·酉의 간지가 포함되는 연도의 정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그 前年 7월부터 시작되었다. 호적이 작성되는 시기가 되면, 각 고을의 수령(제주의 경우 제주목사·정의현감·대정현감)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都監을 두고 본격적인 호적작성 업무를 시작해 나갔다.

호적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각 마을의 厘正·監考·別有司·尊位는 각 집안에서 작성한 호구단자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마을을 단위로 전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마을 단위로 작성된 호적을 호적중초라 하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와 각 집안에서 수합한 호구단자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일일이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빨간 글씨로 정정하고, 몇 통 몇 호를 각각 기입하여 수령의 싸인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호

적중초와 호구단자를 각 마을로 내려 보냈다. 각 마을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집안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구역이나 세금 징수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호적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民을 호적에 기입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搖賦의 부과에 철저를 기하려고 했지만, 임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들은 籍吏와의 결탁에 의한 신분 상승의 방법으로 모록·모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적리들은 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이의 증감, 黜退⁴⁾를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호적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져 갔다. 더구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던 계층들은 점차 搖賦가 가중되어 나가자, 피역을 위한 도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제주의 경우도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폐단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폐단은 색리들이 호구단자를 수합하면서 일반 백성을 상대로 잡물을 횡령하는 것이었다. 각 洞의 任掌들이 전례 혹은 邑에서 사용할 용도라 칭하며, 일반 백성들로부터 米布, 닭과 술, 지붕 덮는 새, 涼竹[갓양태의 재료], 南草 등을 제 멋대로 誅求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그리고 호적을 마감한 후에 考準의 절차가 있었는데, 이 때에도 색리들은 人情⁶⁾의 명목으로 역시 백성으로부터 토색하였다. 심지어 고준자들이 빈손으로 왔을 경우는 호적의 대조마저 기피하였다. 이에 순조 22년(1822, 임오) 2월 李元八 목시는 호적 작성 또는 호적 대조와 관련하여 전례라 이르며 몰래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엄형하고 영원히 牧子로 정배할 것을 천명하였다.⁷⁾

4) 貢物 수납 등 官에서 일정한 물품을 받을 때에 물건을 조사하여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培英社, 1983, 502쪽). 호적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戶口米·人口穀 징수 또는 考準時에 일반 백성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점퇴가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5) 『戶籍所定式條例成冊』(도두리·금악리·장전리), 1822년(임오) 2월 일.

6) 각 종 稅의 捧納이나 공문서의 발급 및 접수 등에 부탁하는 뜻으로 주는 일종의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담당자의 수고를 위로하는 수수료 형태로 人情米·人情木·人情錢이 하나의 명목이 되었었다.

한편, 제주의 경우 호를 대상으로 米를 징수했고, 인구를 기준해서는 穀을 거두어 들였다. 거두어 들인 쌀은 統籍色에게, 人口穀의 1승 5홉은 마감채 및 예용조로 兩籍色(左面色·右面色)에게, 나머지 1승 5홉은 帳籍·周挾의 書債로 지급하였다. 잡물의 횡령을 막기 위한 교구책으로 마련된 호미와 인구곡의 징수는 실질적으로 잡물 횡령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는 없었다.

호적미는 통적미라고도 하는데 호마다 1승의 쌀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곡은 장적 서채, 해당 색리에게 예에 따라 지급하는 人情條 등으로 인구마다 3승의 곡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 양은 제주목이 1,000여 석, 대정현이 140석, 정의현이 300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일시에 제주민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제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⁸⁾

그리고 각 리의 厘正들은 호적미·인구곡을 징수함에 큰되로써 거두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點退를 일삼아 늙고 파리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자, 또는 乳穉·黃口,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강보에 쌓인 어린애에게까지 징수하는 폐단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에 현종 5년(1839, 기해) 11월, 具載龍 목사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호미 및 인구곡의 징수를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안으로 마련된 교구책이 금번 式年(1840)條는 月廩錢에서 550냥을 염출하고, 平役餘米 300석과 供彼錢 170냥을 가지고 임시 변통토록 한 것이다.⁹⁾

호적제 운영상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호적 작성시 소용되는 종지와 書債에 대한 것이었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각 마을마다 호적중초 또는 통적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戶籍紙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統籍 書債米는 전에 이미 혁파하여 해당 監考가 書納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단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제주의 호적제 운영은 호적 법식이 타지역과 구별되어, 매 식년에 누락된 호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¹⁰⁾ 각 마

7) 『戶籍所定式條例成冊』(도두리·금악리·장전리), 1822년(임오) 2월 일.
8)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道頭·水山·今勿里), 1839년(己亥) 11월 日.
9)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道頭·水山里), 1839년(현종 5, 기해) 11월 일 참조.
10) 호적대장의 작성 방법으로는 寬法과 嚴法이 있는데, 관법은 戶 또는 口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요역과 부세를 할당하기 위해 그 대강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핵법은 1호, 1구도

을별로도 草籍이 작성되어¹¹⁾ 籍草紙가 많이 소용되었다. 더구나 제주지방은 8道 중에서도 紙政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籍草紙를 각 戶에서 수렴하는 것은 심한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¹²⁾ 또한 考籍 人情木의 폐단 역시 계속 문제되고 있었다.¹³⁾

이와 같이 19세기 제주지방 호적제 운영상의 폐단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변통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호적제의 문란은 단순한 호적제 자체의 제도적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삼정의 문란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호적제 운영에 있어 타지역과 다른 점이 보인다. 우선 嚴法에 의한 호적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적리와의 결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에서 寬法에 따라 의도적으로 호적에서 호구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었다.

다음으로 각 마을별로 호적중초가 철저히 작성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타지역에서도 호적중초의 존재를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제주도는 거의 관행적으로 모든 마을에서 호적중초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제주 지역의 각 마을에서 수집되는 호적중초에서도 뒷받침 된다.

3.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

조선시대 제주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¹⁴⁾ 이 3개 군현 중에서 현재 호적중초가 주로 확인되는 곳은 조선시대 대정현 소속 마을

빠짐 없이 모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牧民心書』 戶典 六條, 戶籍條).
 11) 마을에서 작성한 草籍을 戶籍中草라 하는데, 이는 戶籍重草·戶籍仲草, 戶口中草·戶口仲草·戶口重草로 기재되기도 한다.
 12) 『籍草紙本錢設置節目』도두리, 1872년 11월 일.
 13) 『考籍人情木防給節目』(道頭里), 1880년(고종 17, 경진) 2월 일.
 14) 金東柱,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濟州島史研究會, 1991, 45~69쪽 참조.

들이다. 각 마을마다 호적증초를 보관하면서 징세 등의 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하는 호적증초 외에 호적증초가 확인될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주로 발견되는 호적증초가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대정현에 소속된 마을들에 대해 머릿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은 18세기 후반과 1904년 자료에 나타난 대정현 소속 마을들이다.

<표 1> 18세기 후반, 광무 8년(1904) 대정현(군) 소속 마을 명칭

자료명	시기	군현명	마을 명칭
『제주대정정읍지』	정조 연간 (1780~1789)	대정현	동성리, 금물로리, 자단리, 범천리, 통수리, 감산리, 통천리, 서성리, 하모슬리, 일과리, 돈포리, 상모슬리, 창천리, 상예래리, 하예래리, 성산리, 색달리, 중문리, 대포리, 하원리, 석송리, 강정리
『삼군호구가간총책』	광무 8년 (1904)	대정군	강정리, 영남리, 월평리, 도순리, 하원리, 도문리, 대포리, 상문리, 동중문리, 중문리, 색달리, 상예리, 하예리, 창천리, 상천리, 감산리, 통천리, 화순리, 광평리, 동광청리, 광청리, 덕수리, 사계리, 안성리, 인성리, 보성리, 상모리, 하모리, 동일과리, 일과리, 신평리, 영락리, 무릉리, 도원리,

<표 1>에 의하면, 정조년간(1780~1789년)의 대정현에는 동성리, 금물로리, 자단리, 범천리, 통수리, 감산리, 통천리, 서성리, 하모슬리, 일과리, 돈포리, 상모슬리, 창천리, 상예래리, 하예래리, 성산리, 색달리, 중문리, 대포리, 하원리, 석송리, 강정리 등 22개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광무 8년(1904) 대정군에는 강정리, 영남리, 월평리, 도순리, 하원리, 도문리, 대포리, 상문리, 동중문리, 중문리, 색달리, 상예리, 하예리, 창천리, 상천리, 감산리, 통천리, 화순리, 광평리, 동광청리, 광청리, 덕수리, 사계리, 안성리, 인성리, 보성리, 상모리, 하모리, 동일과리, 일과리, 신평리, 영락리, 무릉리, 도원리 등 34개 마을이 나타난다. 130여 년에 걸쳐 마을이 나누어지거나 혹은 새로 생겨난 것이 12개 마을이다. 동일 마을의 경우에 마을 명칭의 변화 등으로 마을 명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마을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를 이

해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정조년간과 광무 8년 대정현 마을명칭의 비교

정조년간의 마을명	광무 8년의 마을명	전후 비교
동성리	안성리, 인성리	개명 및 분리
서성리	보성리	개명
하모슬리	하모리	
상모슬리	상모리	
일파리	일파리, 동일파리	분리
돈포리	무릉리, 도원리	분리
	신평리	신설
	영락리	신설
금물로리	사계리	개명
자단리	덕수리	개명
범천리	회수리	개명
통수리		회수리에 통합
감산리	감산리	
통천리	통천리	
창천리	창천리	
	상천리	신설
	광평리	신설
	동광청리	신설
	광청리	신설
상예래리	상예리	
성산리		상예리 통합
하예래리	하예리	
중문리	상문리, 동중문리, 중문리	분리
	도문리	신설, 회수리
색달리	색달리	
대포리	대포리	
하원리	하원리	
석송리	도순리	개명
	월평리	도순리에서 분리
강정리	강정리	
	영남리	신설, 용흥리
22리	34리	

대정현 지역 외에서 확인되는 호적중초는 정의현 소속이었던 신평리 1책, 제주목 소속이었던 도두리, 장전리, 중엄리, 상가리의 호적중초 등이다. 그러나 제주목의 호적중초는 대정현과는 달리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 자료 정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정현 지역이었던 마을의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대포리, 덕수리, 도순리, 동성리, 사계리, 월평리, 일과리, 중문리, 하모슬리, 하원리, 회수리 호적중초 자료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大浦里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대포리 호적중초는 총 33책이다. 이 중 가장 오래 것은 1804년의 호적중초이며, 그 이후 결본되어 있는 것은 1819년, 1822년, 1825년, 1852년, 1870년, 1876년, 1899년, 1902년, 1904년, 1906년의 호적중초로 그 외는 1908년까지 모두 존재하고 있다. 1804년 이전의 호적중초는 화재로 소실되었거나 혹은 마을 주민의 총의에 의해 일부러 파기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이유는 1801년 공노비 혁파로 제주지방의 경우 모든 공노비가 평민 신분화되면서 공노비가 기재되었던 호적중초를 없애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보존 상태는 1864년, 1885년분의 호적중초가 해충으로 부분적인 훼손을 입었을뿐 양호하다. 호적중초의 크기는 1897년, 1898년을 예외로 하면 가로가 18.5cm에서 23cm에 이르고 있고, 세로는 28cm에서 33.5cm로 세로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더 큰 편이다. 1897년, 1898년의 호적중초는 이와 반대로 약 가로가 35cm 세로가 25.5cm로 가로가 더 큰 형태를 띠고 있다. 관인은 거의 모두 찍혀 있으며, 각 호별 남녀의 인구도 1897년, 1898년의 호적중초를 제외하고 모두 기재되어 있다.

내제가 있는 호적중초는 1810년, 1834년, 1846년, 1849년, 1855년, 1873년, 1882년, 1891년, 1900년, 1905년, 1908년의 호적중초이고, 각 호를 大·中·小·殘戶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은 1846년, 1849년, 1855년 호적중초이다. 각 호별로 가옥의 間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1898년, 1907년, 1908년으로

근대호적법이 성립된 이후이다. 이는 1896년 호구조사세칙에 의해 가옥의 칸 수를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포리는 1804년 84호 368구였으나, 꾸준히 호구가 증가해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인구면에서 이웃한 중문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호당 평균 인구수는 전체 평균 5.96명으로 나타난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1873년 호적중초에 의하면 도망 인구수가 2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당시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임원으로는 리정·감고·별유사·존위 등이 있다. 그러나 호적의 말미에 리정·감고의 경우는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별유사·존위는 姓만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그리고 대포리 호적중초에서 1897년, 1898년의 경우 별유사 대신에 警民長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3>은 대포리 호적중초의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대포리 호적중초의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04년 (순조 4)	84	368	159	209	李(手決)	元(手決)	미기재	
2	1807년 (순조 7)	84	375	163	212	李(手決)	李(手決)		
3	1810년 (순조 10)	84	406	182	224	李(手決)	元(手決)		
4	1813년 (순조 13)	82	429	191	238	李(手決)	李(手決)		
5	1816년 (순조 16)	82	456	199	257	李(手決)	李(手決)		
6	1828년 (순조 28)	90	569	252	317	李(手決)	李(手決)	林春榮	元以興
7	1831년 (순조 31)	91	597	279	317	李(手決)	元(手決)	元以興	金致祿
8	1834년 (순조 34)	91	642	293	349	李(手決)	吳(手決)	元利興	丁若範
9	1837년 (헌종 3)	92	661	306	355	李(手決)	李(手決)	元利興	丁若範
10	1840년 (헌종 6)	94	671	311	360	元(手決)	姜(手決)	金致祿	元時亨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1	1843년 (현종 9)	96	683	315	368	元(手決)	姜(手決)	高濟湖	元始儉
12	1846년 (현종 12)	98	712	342	370	李(手決)	高(手決)	000	
13	1849년 (현종 15)	108	729	354	375	李(手決)	李(手決)	金致祿	丁若範
14	1855년 (철종 6)	113	737	370	367	高(手決)	李(手決)	金漢奎	李先玉
15	1858년 (철종 9)	112	708	356	352	高(手決)	姜(手決)	丁若範	李光銀
16	1861년 (철종 12)	106	660	320	340	高(手決)	姜(手決)	元始儉	元才讚
17	1864년 (고종 1)	106	676	339	337	元(手決)	姜(手決)	奇漢旭	李光銀
18	1867년 (고종 4)	104	683	327	356	高(手決)	元(手決)	元才贊	李光銀
19	1873년 (고종 10)	105	716	379	337	李(手決)	吳(手決)	元養浩	元始春
20	1879년 (고종 16)	104	708	268	440	姜(手決)	李(手決)	金益銀	元始春
21	1882년 (고종 19)	106	719	276	443	李(手決)	李(手決)	元始春	李光銀
22	1885년 (고종 22)	110	725	267	458	姜(手決)	李(手決)	元才贊	元才浩
23	1888년 (고종 25)	110	722	260	462	姜(手決)	李(手決)	元始春	李光銀
24	1891년 (고종 28)	112	730	275	455	姜(手決)	李(手決)	元才寬	李光銀
25	1894년 (고종 31)	112	752	272	480	李(手決)	姜(手決)	元春興	姜齊弘
26	1897년 (광무 1)	173	733	261	471	李(手決)	李(手決)	李光瑞	趙順寬
27	1898년 (광무 2)	179	822	296	526	李(手決)	金(手決)	李光瑞	趙順寬
28	1900년 (광무 4)	165	851	325	526	姜(手決)	李(手決)	000	
29	1901년 (광무 5)	162	852	324	528	金(手決)	李(手決)	姜才弘	趙順寬
30	1903년 (광무 7)		858	329	529	李(手決)	李(手決)	000	趙順寬
31	1905년 (광무 9)	177	869	340	529	高(手決)	任(手決)	000	趙順寬
32	1907년 (융희 1)	214	852	330	522	金世雄	金行鏞	姜才弘	000
33	1908년 (융희 2)	215	865	321	544	姜遇靖	金洪集	姜在弘	000

2) 德修里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덕수리 호적중초는 현재 덕수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호적중초가 정조 10년(1786)·13년(1789)·16년(1792)·19년(1795)으로 4책이며, 그 이후 호적중초가 42책으로 총 46책이다. 이 가운데는 융희 2년(1908) 호적중초가 2책이다. 自丹里라 표기된 것이 1800년 이전 4책, 그 이후 8책으로 12책이다.¹⁵⁾ 자단리는 순조 31년(1831)에 新堂里로 명칭이 고쳐지게 된다. 그후 현종 6년(1840)에 신당리는 덕수리로 다시 개명되었다. 따라서 신당리라 표기된 것이 3책,¹⁶⁾ 현종 6년(1840) 이후의 호적중초는 덕수리로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30책이다. 덕수리 호적중초 자료를 소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덕수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4	정조 10년(1786)·13년(1789)·16년(1792)·19년(1795)								
5	1804 (순조 4)	68	288	123	165	000			
6	1806 (순조 6)	71	302	126	176	趙(手決)	張(手決)	許慶佑	許奉
7	1809 (순조 9)	73	374	178	196	李(手決)	林(手決)	許慶佑	尹成赫
8	1812 (순조 12)	75	394	186	208	柳(手決)	梁(手決)	許慶佑	林時昌
9	1816 (순조 16)	78	427	189	238	柳(手決)	林(手決)	李茂盛	林時昌
10	1819 (순조 19)	81	429	192	337	梁(手決)	林(手決)	林時昌	李斗集
11	1825 (순조 25)	87	482	239	243	梁(手決)	朴(手決)	林時昌	林時昌
12	1828 (순조 28)	87	519	253	266	李(手決)	金(手決)	姜奉祥	尹元福
13	1831 (순조 31)	70	436	219	227	姜(手決)	宋(手決)	李良集	尹光福
14	1834 (순조 34)	69	461	221	240	梁(手決)	宋(手決)	姜奉祥	李命斌

15) 정조 10·13·16·19년 외에 순조 4·7·10·13·16·19·25·28년 호적중초.

16) 순조 31·34년, 현종 3년 호적중초가 신당리 호적중초라 기재되어 있다.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5	1837 (현종 3)	69	낙장으로 확인 불가능						
16	1840 (현종 6)	69	382	180	202	姜(手決)	文(手決)	玄國春	林奇俊
17	1843 (현종 9)	71	382	178	203	姜(手決)	宋(手決)	李慶贊	金明舜
18	1846 (현종 12)	70	394	200	194	文(手決)	梁(手決)	李良集	李慶贊
19	1849 (현종 15)	78	468	234	234	000			
20	1852 (철종 3)	76	454	225	229	宋(手決)	姜(手決)	李良集	林奇俊
21	1855 (철종 6)	75	469	228	241	尹(手決)	朴(手決)	李陽彬	金秋三
22	1858 (철종 9)	77	491	235	256	姜(手決)	尹(手決)	李達仁	金秋三
23	1861 (철종 10)	78	514	243	271	宋(手決)	文(手決)	金秋三	金光龍
24	1864 (고종 1)	80	560	273	287	姜(手決)	尹(手決)	金秋三	吳時連
25	1867 (고종 4)	82	587	281	306	姜(手決)	金(手決)	金永儉	吳萬碩
26	1870 (고종 7)	81	585	226	359	宋(手決)	宋(手決)	宋繼雄	金光龍
27	1873 (고종 10)	81	586	235	351	姜(手決)	宋(手決)	尹瑞龍	金光用
28	1876 (고종 13)	81	556	233	323	尹(手決)	姜(手決)	金應好	金光用
29	1879 (고종 16)	78	541	240	301	宋(手決)	姜(手決)	任道三	玄才植
30	1882 (고종 19)	77	550	255	295	姜(手決)	宋(手決)	李永仁	吳時彦
31	1885 (고종 22)	74	532	248	284	000			
32	1888 (고종 25)	74	513	217	296	尹(手決)	金(手決)	吳時宗	林承權
33	1891 (고종 28)	75	513	227	286	尹(手決)	金(手決)	金麗淑	吳明守
34	1894 (고종 31)	76	523	232	291	金(手決)	宋(手決)	吳時福	玄才植
35	1897 (광무 1)	170	526	238	288	金(手決)	宋(手決)	李用得	玄時行
36	1898 (광무 2)	164	552	245	307	尹(手決)	宋(手決)	高台仁	玄時行
37	1899 (광무 3)	149	550	244	306	金(手決)	李(手決)	洪仁杓	李永甲
38	1900 (광무 4)	156	550	244	306	宋(手決)	宋(手決)	李甲孫	李永甲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39	1901 (광무 5)	154	550	244	306	金(手決)	李(手決)	李甲龍	李永甲
40	1902 (광무 6)	151	537	230	307	姜	李	金戊乞	李永甲
41	1903 (광무 7)	136	543	230	313	宋	宋	安基亨	李永甲
42	1904 (광무 8)	136	548	235	313	宋	金	金相連	李永甲
43	1905 (광무 9)	155	548	235	313	宋殷吉	李春芳	朴尙雲	金振化
44	1906 (광무 10)	167	549	237	312	宋時雲	宋寅明	金甲得	金振化
45-1	1908 (융희 2)	196	557	249	308	宋時雲	金汝永	朴尙雲	李永甲
45-2	1908 (융희 2)	197	565	249	316	吳時亨	里長 李昞英	미기재	里長 李昞英

3) 道順里 호적중초의 현황

도순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중초는 총 50책이다. 도순리의 옛 이름은 ‘돌송리’이다. 한자로는 ‘石宋’ 혹은 ‘疇宋’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호적중초에는 疇宋리로 나타난다. 철종 6년(1855) 이전의 호적중초 19책이 모두 『돌송리 호적중초』로 표기되어 있다.

돌송리에서 도순리로 마을 명칭이 변경된 것은 철종 8년(1857)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철종 9년(1858) 호적중초부터는 마을 명칭이 도순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을 명칭이 도순리로 표기된 호적중초는 모두 28책이다. 이 중에는 광무 1년, 건양 2년이라 표기된 1897년 호적중초가 2책이다

그런데 도순리사무소에는 철종 12년(1861), 고종 원년(1864), 고종 4년(1867) 총 3책의 월평리 호적중초가 보관되어 있다. 월평리는 1860년 경에 도순리에서 분리된 마을이다. 월평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을 호적중초 3책이 도순리 호적중초와 함께 보관되어 있는 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疇宋리 호적중초 : 정조 19년(1795), 순조 4년(1804), 순조 7년(1807), 순조 10년(1810), 순조 13년(1813), 순조 16년(1816), 순조 19년(1819), 순조 22년(1822), 순조 25

년(1825), 순조 28년(1828), 순조 31년(1831), 순조 34년(1834), 헌종 3년(1837), 헌종 6년(1840), 헌종 9년(1843), 헌종 12년(1846), 헌종 15년(1849), 철종 3년(1852), 철종 6년(1855) 총 19책

② 道順里 호적중초 : 철종 9년(1858), 철종 12년(1861), 고종 원년(1864), 고종 4년(1867), 고종 7년(1870), 고종 10년(1873), 고종 13년(1876), 고종 16년(1879), 고종 19년(1882), 고종 22년(1885), 고종 25년(1888), 고종 28년(1891), 고종 31년(1894), 광무 1년(1897), 건양 2년(1897), 광무 2년(1898), 광무 3년(1899), 광무 4년(1900), 광무 5년(1901), 광무 6년(1902), 광무 7년(1903) 2책, 광무 8년(1904), 광무 9년(1905), 광무 10년(1906), 광무 11년(1907), 융희 2년(1908), 융희 3년(1909) 총 28책(1897년 2책)

③ 月坪里 호적중초 : 철종 12년(1861), 고종 원년(1864), 고종 4년(1867) 총 3책

4) 東城里 호적중초의 현황

동성리는 고종 16년(1879)에 안성리로 마을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고종 16년 이전 호적중초는 『동성리호적중초』라 되어 있지만, 그 이후는 『안성리호적중초』라 표기되어 있다. 안성리는 그 후에 다시 안성리와 인성리로 분리된다. 현재 안성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중초는 모두 38책이다. 이 가운데 18세기 후반의 자료로는 정조 7년(1783년), 정조 13년(1789), 정조 22(1798) 3책이다. 나머지는 순조 7년(1807) 이후의 호적중초 35책으로 모두 38책이 남아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동성리 호적중초는 1783년부터 1908년에 이르는 호적자료이다. 동성리 호적중초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정조 7·13·22년 3책, 순조 7·10·13·16·19·22·25·28·31·34년 10책, 헌종 3·6·9·15년 3책, 철종 6·9·12년 3책, 고종 원년·4·7·10·13·16·19·22·25·28년 10책, 건양 원년 1책, 광무 2·3·4·5·6·9년 6책, 융희 2년 1책이다. 이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정조 7년(1783) : 건륭48년 정월일 계묘식 호적중초

- (2) 정조 13년(1789) : 건륭54년 정월일 을유식 호적중초
- (3) 정조 22년(1798) : 가경 3년 동성리 호구중초
- (4) 순조 7년(1807) : 가경12년 정월일 동성리 정묘식 호적중초
- (5) 순조 10년(1810) : 가경15년 정월일 동성리 경오식 호구중초
- (6) 순조 13년(1813) : 가경18년 정월일 동성리 계유식 호적중초
- (7) 순조 16년(1816) : 가경21년 정월일 병자식 동성리 호구중초
- (8) 순조 19년(1819) : 가경24년 정월기묘식 동성리 호구중초
- (9) 순조 22년(1822) : 도광 2년 정월일 동성리 임오식 호구중초
- (10) 순조 25년(1825) : 도광 5년 정월일 동성리 을유식 호적 중초
- (11) 순조 28년(1828) : 도광 8년 정월일 무자식 동성리 호적 중초
- (12) 순조 31년(1831) : 도광11년 정월 신묘식 동성리 호적 중초
- (13) 순조 34년(1834) : 도광14년 정월일 갑오식 동성리 호적 중초
- (14) 헌종 3년(1837) : 도광17년 정월일 동성리 정유식 호적 중초
- (15) 헌종 6년(1840) : 도광20년 정월 경자식 동성리 호적 중초
- (16) 헌종 9년(1843) : 도광23년 정월 계묘식 동성리 호적 중초
- (17) 헌종 15년(1849) : 도광29년 정월일 동성리 기유식 호적 중초
- (18) 철종 6년(1855) : 함풍 5년 정월 을묘식 동성리 호적 중초
- (19) 철종 9년(1858) : 함풍 8년 정월 무오식 동성리 호적 중초
- (20) 철종 12년(1861) : 함풍11년 정월일 동성리 호적 중초
- (21) 고종 원년(1864) : 동치 3년 정월일 동성리 호적 중초
- (22) 고종 4년(1867) : 동치 6년 정월 동성리 호적 중초
- (23) 고종 7년(1870) : 동치 9년 정월일 동성리 호적 중초
- (24) 고종 10년(1873) : 동치12년 정월일 동성리 호적 중초
- (25) 고종 13년(1876) : 광서 2년 정월일 동성리 병자식 호적 중초
- (26) 고종 16년(1879) : 광서 5년 정월 기묘식 안성리 호적 중초
- (27) 고종 19년(1882) : 광서 8년 정월 임오식 안성리 호적중초
- (28) 고종 22년(1885) : 광서11년 정월 기유식 안성리 호적 중초
- (29) 고종 25년(1888) : 광서14년 정월 무자식 안성리 호적 중초

- (30) 고종 28년(1891) : 광서17년 정월 신묘식 안성리 호적 중초
- (31) 건양 원년(1896) : 광서20년 정월 갑오식 안성리 호적 중초
- (32) 광무 2년(1898) : 무술정월일 안성리 호적중초
- (33) 광무 3년(1899) : 정월 기해식 안성리 호구중초
- (34) 광무 4년(1900) : 정월 경자식 안성리 호적중초
- (35) 광무 5년(1901) : 정월일 안성리 호구중초
- (36) 광무 6년(1902) : 임인정월 안성리 호구중초
- (37) 광무 9년(1905) : 정월 을사식 안성리 호구중초
- (38) 융희 2년(1908) : 정월무신식 안성리 호적중초

5) 沙溪里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사계리사무소에 보관된 44책의 호적중초 가운데는 금물로리 호적중초가 13책, 사계리 호적중초가 31책이다. 사계리의 명칭은 본래 ‘검은길’로 한자로 표기하면 今勿路里이다. 금물로리가 사계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현종 6년(1840) 경이다. 따라서 현종 3년(1837) 호적중초까지는 금물로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금물로리에서 사계리로 마을 명칭이 개명되면서 1840년 이후는 사계리 호적중초라 기재되어 있다.

1807년의 사계리 호구가 75호에 334구(남 139, 여 195)였으나, 100년 후인 1908년에는 207호에 742구로 남자 354명, 여자 388명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계리 호적중초의 구체적인 현황을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표 5〉 사계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2	정조 19년(1795), 정조 22년(1798)										
3	1807년 (순조 7)	75	334	139	195	李(手決)	文(手決)	미기체			
4	1810년 (순조 10)	75	357	161	196	柳(手決)	林(手決)				
5	1813년 (순조 13)	77	405	180	225	柳(手決)	池(手決)				
6	1816년 (순조 16)	80	445	199	246	池(手決)	李(手決)				
7	1819년 (순조 19)	77	435	187	248	柳(手決)	李(手決)				
8	1822년 (순조 22)	76	442	204	238	池(手決)	柳(手決)				
9	1825년 (순조 25)	77	469	233	236	池(手決)	具(手決)				
10	1828년 (순조 28)	78	503	237	266	池(手決)	具(手決)				
11	1831년 (순조 31)	낙장으로 확인 불가능									
12	1834년 (순조 34)	73	557	269	288	柳(手決)	李(手決)				
13	1837년 (헌종 3)	73	588	208	308	柳(手決)	李(手決)				
14	1840년 (헌종 6)	71	552	270	282	具(手決)	池(手決)				
15	1843년 (헌종 9)	71	587	282	305	柳(手決)	池(手決)				
16	1846년 (헌종 12)	71	611	297	314	柳(手決)	具(手決)				
17	1849년 (헌종 15)	71	660	316	344	梁(手決)	池(手決)				
18	1852년 (철종 3)	75	705	335	370	李(手決)	池(手決)				
19	1855년 (철종 6)	76	745	349	396	李(手決)	具(手決)				
20	1858년 (철종 9)	77	786	371	415	李(手決)	李(手決)				
21	1861년 (철종 12)	78	829	380	449	李(手決)	池(手決)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22	1864년 (고종 1)	78	839	392	447	李(手決)	姜(手決)	미기재	
23	1867년 (고종 4)	86	873	405	478	李(手決)	李(手決)		
24	1870년 (고종 7)	89	884	379	505	池(手決)	愼(手決)		
25	1873년 (고종10)	90	867	382	485	林(手決)	李(手決)		
26	1876년 (고종13)	98	860	388	472	李(手決)	池(手決)		
27	1879년 (고종16)	99	889	403	486	李(手決)	池(手決)		
28	1882년 (고종19)	102	877	410	467	都監 池(手決)	警民長愼		
29	1885년 (고종 22)	102	900	402	498	警民長 池(手決)	李(手決)		
30	1888년 (고종 25)	104	910	405	505	警民長 李(手決)	李(手決)		
31	1891년 (고종 28)	104	929	418	511	警民長李 (手決)	金(手決)		
32	1894년 (고종 31)	103	939	424	515	警民長 李(手決)	李(手決)		
33	1897 (광무 1)	낙장으로 확인 불가능							
34	1898 (광무 2)	223	858	375	483	확인 불가능			
35	1899 (광무 3)	95	383	165	218	李(手決)	미기재	李在興	
36	1900 (광무 4)	95	440	188	252	金(手決)	都監 尹(手決)	미기재	康好豊
37	1901 (광무 5)	106	568	248	320	李(手決)	都監 李(手決)	康好豊	李才興
38	1902 (광무 6)	170	832	371	461	李(手決)	都監 李(手決)	康好豊	姜在興
39	1903 (광무 7)	167	836	370	466	李(手決)	趙(手決)	康好豊	姜在興
40	1904 (광무 8)	164	832	370	462	李(手決)	愼(手決)	康好豊	姜在興
41	1905 (광무 9)	204	832	370	462	李(手決)	愼(手決)	金宗福	姜在興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42	1906 (광무 10)	215	832	370	462	李(手決)	梁(手決)	康好豊	姜在興
43	1907 (광무 11)	208	833	372	461	李鳳梧	都監 鄭時稟	미기제	姜在興
44	1908 (융희2)	207	742	354	388	愼充錫	都監 金尙白	康好豊	姜渭興

6) 月坪里 호적증초의 현황 및 호구

월평리사무소에 보관된 월평리 호적증초는 모두 14책이다. 가장 오래 것은 1861년의 호적증초이다. 그 이전의 호적증초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60년경 이 마을이 도순리(돌송리)에서 분리해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보관상태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나, 1904년의 호적증초는 표지가 상실되어 있다. 모든 호적증초에는 각 면에 관인이 찍혀 있고 각 호별 남녀인구의 통계가 기재되었다.

1861년 당시 월평리의 규모는 16호에 인구 113명으로 작은 마을이었다. 그 후 월평리는 계속 성장하여 1894년에 32호에 173명, 1909년은 인구가 22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마을 호적증초에서는 里長의 명칭이 보이는데, 1909년 호적증초의 경우가 그것으로 별유사·존위가 사라지고 리장이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마을 대표자를 의미하는 리장의 명칭은 1909년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은 월평리 호적증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율령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크기 (가로×세로)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61 (철종 12)	19.0×34.5	16	113	44	69	李(手決)	姜(手決)	高漢珉	金振源
2	1864 (고종 1)	20.0×34.5	17	117	43	74	李(手決)	姜(手決)	李光禮	金振源
3	1867 (고종 4)	20.0×29.0	23	148	58	90	金(手決)	姜(手決)	高漢珉	趙斗鎭
4	1891 (고종 28)	22.0×35.0	20	120	49	78	李(手決)	姜(手決)	金恒官	姜明性
5	1894 (고종 31)	21.0×30.0	32	173	65	108	李(手決)	任(手決)	金致伯	黃才允
6	1897 (광무 1)	19.0×27.5	51	189	86	103	李(手決)	玄(手決)	金恒官	趙仁庄
7	1898 (광무 2)	20.0×30.5	49	188	84	104	金(手決)	吳(手決)	黃才允	黃才允
8	1899 (광무 3)	20.0×29.0	49	201	85	116	金(手決)	李(手決)	000	黃才允
9	1900 (광무 4)	21.0×31.0	48	200	87	113	金(手決)	李(手決)	金恒官	黃才允
10	1901 (광무 5)	21.0×32.0	48	201	88	113	李(手決)	姜(手決)	000	黃才允
11	1903 (광무 7)	19.0×30.0	48	201	88	113	李(手決)	金(手決)	金恒官	金恒官
12	1903 (광무 7)	20.0×29.5	46	200	88	112	姜(手決)	李(手決)	黃才允	黃才允
13	1904 (광무 8)	19.0×28.0	49	195	89	106	趙(手決)	吳(手決)	黃才允	黃才允
14	1909 (융희 3)	16.0×24.0	64	224	116	108	미기재		高振祿	呂昌文

7) 日果里 호적중초 현황

일과리 호적중초는 모두 52책이다. 이 중에 동일과리라 표기된 것이 광무 6년 이후 7책이다. 1800년 이전 호적이 6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셈이다. 순조 원년(1801)과 융희 2년(1908) 호적중초는 2책씩 남아 있다. 구체적인 호적중초의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정조 7년(1783) : 건륭48년 계묘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2) 정조 10년(1786) : 건륭51년 병오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3) 정조 13년(1789) : 건륭54년 을유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4) 정조 16년(1792) : 건륭 57년 임자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5) 정조 19년(1795) : 건륭60년 을묘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6) 정조 22년(1798) : 가경 3년 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7) 순조 원년(1801) : 가경 6년 정월일 일과리 호적중초
- (8) 순조 원년(1801) : 가경 6년 정월신유식 第右面 일과리 *
- (9) 순조 4년(1804) : 가경 9년 정월일 第11 일과리 갑자식 호적중초
- (10) 순조 7년(1807) : 가경12년 정월일 일과리 정묘식 호구중초
- (11) 순조 10년(1810) : 가경15년 정월일 일과리 경오식 호구중초
- (12) 순조 13년(1813) : 가경18년 정월일 일과리 계유식 호적중초
- (13) 순조 16년(1816) : 가경21년 정월일 병자식 대정우면 제10 일과리 호적중초
- (14) 순조 19년(1819) : 가경24년 정월기묘식 대정우면 일과리 호적 중초
- (15) 순조 22년(1822) : 도광 2년 정월일 일과리 임오식 호적 중초
- (16) 순조 25년(1825) : 도광 5년 정월일 일과리 을유식 호적 중초
- (17) 순조 28년(1828) : 도광 8년 정월일 무자식 일과리 호적 중초
- (18) 순조 31년(1831) : 도광11년 정월 신묘식 대정현 제2우면 제12 일과리 호적 중초
- (19) 순조 34년(1834) : 도광14년 정월일 갑오식 일과리 호적 중초
- (20) 헌종 3년(1837) : 도광17년 정월일 일과리 정유식 호적 중초
- (21) 헌종 6년(1840) : 도광20년 정월 경자식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과리 호적 중초
- (22) 헌종 9년(1843) : 도광23년 정월 계묘식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과리 호적 중초
- (23) 헌종 12년(1846) : 도광26년 정월일 일과리 병오식 호적 중초
- (24) 헌종 15년(1849) : 도광29년 정월일 일과리 기유식 호적 중초
- (25) 철종 3년(1852) : 함풍 2년 정월일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과리 임자식 호

적 중초

- (26) 철종 6년(1855) : 함풍 5년 정월 을묘식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파리 호적 중초
- (27) 철종 9년(1858) : 함풍 8년 정월 무오식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파리 호적 중초
- (28) 철종 12년(1861) : 함풍11년 정월일 대정현 2우면 일파리호적 중초
- (29) 고종 원년(1864) : 동치 3년 정월일 대정현 2우면 일파리 호적 중초
- (30) 고종 4년(1867) : 동치 6년 정월 정묘식 대정군 제2우면 제13 일파리 호적 중초
- (31) 고종 7년(1870) : 동치 9년 정월일 대정군 제2우면 일파리 호적 중초
- (32) 고종 10년(1873) : 동치12년 정월일 계유식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파리 호적 중초
- (33) 고종 13년(1876) : 광서 2년 정월일 제2우면 일파리 병자식 호적 중초
- (34) 고종 16년(1879) : 광서 5년 정월 기묘식 대정군 제2우면 일파리호적 중초
- (35) 고종 19년(1882) : 광서 8년 정월 임오식 대정현 제2우면 제11 일파리 호적중초
- (36) 고종 22년(1885) : 광서11년 정월 기유식 일파리 호적 중초
- (37) 고종 25년(1888) : 광서14년 정월 무자식 일파리 호적 중초
- (38) 고종 28년(1891) : 광서17년 정월 신묘식 일파리 호적 중초
- (39) 고종 31년(1894) : 광서20년 정월 갑오식 일파리 호적 중초
- (40) 광무 3년(1899) : 정월 기해식 일파리 호적 중초
- (41) 광무 4년(1900) : 정월 경자식 일파리 호적 중초
- (42) 광무 4년(1900) : 정월 경자식 일파리호적 중초
- (43) 광무 5년(1901) : 정월일 일파리호적 중초
- (44) 광무 5년(1901) : 정월일동 일파리신축식 호적 중초
- (45) 광무 6년(1902) : 임인정월 일파리호적중초
- (46) 광무 6년(1902) : 정월일 동일파리 임인식 호적 중초
- (47) 광무 7년(1903) : 정월일 동일파리 계묘식 호적 중초
- (48) 광무 8년(1904) : 정월 갑진식 동일파리호적 중초

- (49) 광무 9년(1905) : 정월 을사식 동일과리 호적 중초
- (50) 광무 11년(1907) : 정월 정미식 동일과리 호적 중초
- (51) 융희 2년(1908) : 정월무신식 전라남도 대정군 동일과리 호적 중초
- (52) 융희 2년(1908) : 정월일 동일과리 무신식 호구 중초*

8) 中文里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중문리 호적중초에서 18세기 호적중초로는 정조 10년(1786) 호적중초가 유일하며, 1801년 이후 1894년까지는 매 3년마다 호적중초가 빠짐없이 남아 있다. 1897년 이후는 호적중초가 매년마다 작성되었는데, 1897년 호적중초를 제외하고는 1904년까지 결본 없이 존재하고 있고, 1902년 동중문리 호적중초까지 포함하여 모두 41책이 현존하고 있다. 부분훼손이 되어 있는 1786년, 1810년, 1828년, 1898년, 1903년 분의 호적중초를 제외하면 거의 보관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관인은 각 면에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호별로 인구의 수와 남녀 별 인구의 수를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 호를 大·中·小·殘戶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은 1807년, 1828년, 1885년, 1898년의 호적중초에 국한되어 있다. 중문리 호적중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표 7> 중문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786년 (정조 10)	154	낙장으로 파악 불가능						
2	1801년 (순조 1)	153	648	258	390	낙장으로 파악 불가능			
3	1804년 (순조 4)	낙장으로 파악 불가능							
4	1807년 (순조 7)	151	698	295	403	吳(手決)	梁(手決)	池有彦	李始漢
5	1810년 (순조 10)	148	747	332	415	高(手決)	李(手決)	金義泰	金大賢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7	1816년 (순조 16)	153	826	374	452	邊(手決)	玄(手決)	趙恒益	金宗彦
8	1819년 (순조 19)	152	862	376	486	金(手決)	吳(手決)	金義兌	林光春
9	1822년 (순조 22)	154	917	423	494	李(手決)	高(手決)	康宗卷	林有慶
10	1825년 (순조 25)	156	978	453	525	李(手決)	李(手決)	李始漢	康文喆
11	1828년 (순조 28)	낙장으로 파악 불가능							
12	1831년 (순조 31)	164	1146	550	596	金(手決)	李(手決)	趙信廉	金尙殷
13	1834년 (순조 34)	166	1199	576	623	李(手決)	邊(手決)	金尙殷	林有寧
14	1837년 (헌종 3)	168	1244	587	657	高(手決)	李(手決)	金尙殷	康文喆
15	1840년 (헌종 6)	174	1290	597	693	金(手決)	高(手決)	康文喆	林榮福
16	1843년 (헌종 9)	170	1215	559	656	李(手決)	高(手決)	金尙殷	康文喆
17	1846년 (헌종 12)	171	1241	568	673	高(手決)	金(手決)	康文喆	林榮福
18	1849년 (헌종 15)	174	1290	597	693	金(手決)	高(手決)	康文喆	林榮福
19	1852년 (철종 3)	136	1022	466	556	高(手決)	金(手決)	康文喆	林榮福
20	1855년 (철종 6)	136	1003	447	556	高(手決)	李(手決)	000	000
21	1858년 (철종 9)	134	996	455	541	李(手決)	高(手決)	金尙恩	金良玉
22	1861년 (철종 12)	131	964	445	519	李(手決)	高(手決)	林榮祚	李奎?
23	1864년 (고종 1)	129	974	438	536	李(手決)	高(手決)	金才儉	林榮祚
24	1867년 (고종 4)	131	993	446	547	邊(手決)	李(手決)	林榮祚	金才完
25	1870년 (고종 7)	130	964	382	582	邊(手決)	高(手決)	金以玉	金才儉
26	1873년 (고종 10)	낙장으로 파악 불가능							
27	1876년 (고종 13)	134	낙장으로 파악 불가능			金(手決)	李(手決)	金光鉉	林九鶴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28	1879년 (고종 16)	129	994	582	582	高(手決)	金(手決)	李奎寬	金完孫
29	1882년 (고종 19)	129	974	571	571	金(手決)	邊(手決)	金光鉉	林鳴鶴
30	1885년 (고종 22)	128	989	405	584	李(手決)	李(手決)	李奎觀	金完孫
31	1888년 (고종 25)	129	994	421	573	李(手決)	玄(手決)	宋仁行	金才完
32	1891년 (고종 28)	136	972	416	556	李(手決)	李(手決)	朴時公	康衣文
33	1894년 (고종 31)	122	961	401	561	李(手決)	吳(手決)	宋仁恒	金才完
34	1898년 (광무 2)	파악 불가능				李(手決)	李(手決)	朴時溫	姜基文
35	1899년 (광무 3)	143	614	268	346	吳(手決)	李(手決)	姜基文	姜申丕
36	1900년 (광무 4)	142	622	273	349	玄(手決)	李(手決)	金乙丕	姜神丕
37	1901년 (광무 5)	142	631	272	359	吳(手決)	金(手決)	金乙丕	미기재
38	1902년 (광무 6)	124	564	244	320	李(手決)	李(手決)	金贊玉	
39	1902년 (광무 6)	78	344	154	190	高(手決)	李(手決)	金利八	
40	1903년 (광무 7)	123	578	253	325	李(手決)	吳(手決)	金贊玉	
41	1904년 (광무 8)	208	885	375	510	吳(手決)	李(手決)	林在彬	高龍碩

중문리 호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순조 원년(1801) 153호 648명에서 인구가 점차 증가되어 1849년에는 174호 1,290명에 이르렀다가, 1852년 136호 1,022호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 일대의 새로운 마을 형성 및 분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849년 중문리 호적중초와 1852년 회수리 호적중초를 비교해 보면, 1849년에 중문리에 소속되었던 일부의 戶가 빠지고, 1852년 회수리 호적중초에 동일 戶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중문리 호구

의 감소는 중문리에서 회수리가 분리되어 나갔음을 의미한다. 그 후 중문리의 호구는 점차 감소를 보이다가 1904년에 이르러 1903년과 비교할 때 1년만에 300여 명이 증가한 885명의 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마을의 통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9) 下慕瑟里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하모슬리¹⁷⁾ 호적중초는 하모 3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향장이 관리하고 있다. 호적중초 자료는 모두 43책이다. 1800년 이전 호적중초로 정조 10년(1786), 정조 22년(1798) 호적중초가 있다. 나머지 41책은 1801년부터 1907년에 이르는 호적중초이다. 순조 31년(1831) 호적중초 2책 가운데 1책은 완결본이나 1책은 10통까지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호적중초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파본으로 추정된다. 호적중초와 함께 다수의 통적 및 민적부도 보관되어 있다.

호적중초는 일반적으로 해당 식년의 정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모슬리 호적중초 가운데는 표제에 가경 6년의 호적중초가 가경 5년 10월, 가경 15년 호적중초가 가경 14년 10월, 가경 18년 호적중초가 가경 17년 11월로 기재된 것이 나타난다. 실제적인 호적작성은 이와 같이 해당 식년 전에 이루어지지만 모든 내용은 해당 식년 정월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중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식년의 정월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표제에만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하모리 호적중초의 마을명은 순조 원년(1801) 호적중초에 ‘下慕瑟浦里’, 광무 8년(1904) 호적중초에 ‘下慕里’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下慕瑟里’라 표기하였다. 이는 마을 명칭이 모슬포리→상모슬포리(상모슬리), 하모슬포

17) 하모슬리는 현재 하모 1·2·3리로 나누어져 있다. 하모슬리는 가파도와 마라도로 가는 뱃길의 포구이며, 어촌 마을이다. 특히 조선시대 이 곳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9개 진성 가운데 모슬진성이 위치해 있었다. 조선후기 하모슬리는 고부이씨의 영향력이 강했던 곳 중의 하나이며, 그 다음으로 진주강씨, 김해김씨들이 다수 모여 살고 있었다.

리(하모슬리)→상모리, 하모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적중초에는 ‘下幕’라는 마을 인장이 찍힌 사례가 1849년, 1855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다. 한편, 광무 8년(1904) 호적중초에는 家間數가 나타나 있다. 정조 22년(1798) 호적중초에 의하면, 하모슬리에는 104호에 인구 397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자는 163명, 여자는 234명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8>은 하모슬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하모슬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786년 (정조 10)	미기재							
2	1798년 (정조 22)	104	397	163	234	文	李	梁之謙	金進卓
3	1801년 (순조 1)	1·2통, 20통 이후 낙장							
4	1807년 (순조 7)	표지, 20통 5호이후 낙장, 각호 대중소잔호, 호별남녀구분							
5	1810년 (순조 10)	101	475	226	249	梁	李	趙完碧	金信兌
6	1813년 (순조 13)	101	507	231	276	文	李	金永齊	金鎮鐸
7	1816년 (순조 16)	102	541	299	242	文	李	姜宗元	金信兌
8	1819년 (순조 19)	표지 탈락, 호별 남녀구분, 11통 4호 이후 낙장							
9	1822년 (순조 22)	103	598	294	304	文	吳	金弼彦	金信兌
10	1825년 (순조 25)	21통 3호 이후 탈락							
11	1828년 (순조 28)	110	694	338	356	吳	李	李宗記	金信兌
12	1831년 (순조 31)	110	709	343 (표류4)	366	文	金	池相仁	姜允範
13	1834년 (순조 34)	107	725	336 (표류4)	389	鄭	金	金信兌	金宗連
14	1837년 (헌종 3)	107	750	342 (도망1)	408	鄭	金	金信兌	姜秀慶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5	1840년 (현종 6)	110	730	335	395	李	李	池相祺	姜秀慶
16	1843년 (현종 9)	114	758	350	408	鄭	李	池相旗	姜秀慶
17	1846년 (현종 12)	114	780	359	421	鄭	李	金鍾豪	姜秀景
18	1849년 (현종 15)	118	823	369	454 (도망1)	金	李	李宗海	姜秀景
18	1852년 (철종 3)	122	836	405	431	李	鄭	羅宗植	姜秀景
20	1855년 (철종 6)	130	860	409	451	鄭	李	姜水景	吳承祿
21	1858년 (철종 9)	134	902	439	463	李	鄭	姜水景	文光行
22	1861년 (철종 12)	134	910	445	465	李	鄭	吳承祿	文光行
23	1864년 (고종 1)	135	943	468	475	李	李	姜水京	李光福
24	1867년 (고종 4)	140	962	460	502	李	李	姜秀京	文光行
25	1870년 (고종 7)	146	1,026	447	579	李	金	姜秀景	金成弘
26	1873년 (고종 10)	146	1,041	455	586	李	李	姜秀京	金龍雲
27	1876년 (고종 13)	159	1,043	461	582	경민장 金	존위 李	金龍雲	吳啓伯
28	1879년 (고종 16)	151	1,064	472	592	鄭	李	吳啓伯	朴永煥
29	1882년 (고종 19)	153	1,090	472	618	文	李	姜才孝	洪才祿
30	1885년 (고종 22)	150	1,071	451	620	李	金	金用雲	洪才祿
31	1888년 (고종 25)	149	1,013	423	590	文	李	姜才孝	李萬亨
32	1891년 (고종 28)	150	1,015	430	585	별유사 李	都監 姜	金應伯	朴永植
33	1894년 (고종 31)	145	986	414	572	文	姜	姜才孝	高奉鶴
34	1898년 (광무 2)	233	862	356	506	文	李	리정 朴永煥	
35	1899년 (광무 3)	225	869	359	510	李	李	감고 金成權	
36	1900년 (광무 4)	218	887	374	513	李	文	감고 朴永煥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37	1901년 (광무 5)	219	887	379	508	李	高	감고 朴永煥	
38	1902년 (광무 6)	204	874	385	489	文	李	監考金成權	
39	1903년 (광무 7)	202	879	392	487	李	李	監考金成權	
40	1904년 (광무 9)	211	862	380	482	文	李	감고 朴永桓	
41	1905년 (광무 9)	210	862	377	485	李	李	감고 朴永桓	
42	1906년 (광무 10)	210	842	369	473	李	金	000	
43	1907년 (융희 1)	307	843	364	481	별유사 文基鎬 도감 李宗洽			

10) 下院[河源]里 호적중초의 현황 및 호구

하원리 호적중초는 총 36책이다.¹⁸⁾ 즉, 1810년에서 1908년에 이르는 호적중초인데, 이 중에서 1831년, 1834년, 1864년, 1897년 호적중초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호적중초의 보존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각 호를 大·中·小·殘戶로 구분해 놓은 호적중초는 1819년 호적중초뿐이다. 호적중초상에서 볼 때 하원리는 대정현 좌면 제3리에 해당하며, 마을 명칭이 下院→河源(1852년 이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는 하원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 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를 나타낸 것이다.

18) 서울대학교 규장각, 『濟州河源里戶籍中草』 1·2·3, 1992.

〈표 9〉 하원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10 (순조 10)	50	267	125	142	姜(手決)	吳(手決)	張漢濟	尹貴泰
2	1813 (순조 13)	50	273	129	144	吳(手決)	金(手決)	池漢仁	金德起
3	1816 (순조 16)	53	288	133	155	李(手決)	高(手決)	趙廷玠	姜大孫
4	1819 (순조 19)	52	302	143	159	文(手決)	姜(手決)	金德起	高興齊
5	1822 (순조 22)	55	315	151	164	姜(手決)	金(手決)	姜致謙	金德期
6	1825 (순조 25)	53	337	162	175	金(手決)	姜(手決)	姜致弘	許敏
7	1828 (순조 28)	51	343	184	159	金(手決)	文(手決)	高興大	郭道仲
8	1837 (헌종 3)	55	430	195	235	金(手決)	金(手決)	元才弘	李廷恩
9	1840 (헌종 6)	54	389	180	209	金(手決)	姜(手決)	元才弘	郭道仲
10	1843 (헌종 9)	49	387	180	207	金(手決)	金(手決)	元才弘	池益信
11	1846 (헌종 12)	47	421	198	223	高(手決)	金(手決)	趙東六	池益信
12	1849 (헌종 15)	50	427	203	224	姜(手決)	金(手決)	趙東六	尹慶孝
13	1852 (철종 3)	48	425	192	233	金(手決)	金(手決)	姜用海	池益信
14	1855 (철종 6)	49	434	204	230	姜(手決)	金(手決)	趙東六	尹慶孝
15	1858 (철종 9)	49	459	214	245	姜(手決)	金(手決)	趙東六	趙井鎭
16	1861 (철종 12)	50	468	214	254	金(手決)	吳(手決)	姜營洽	郭信九
17	1867 (고종 4)	53	481	226	255	金(手決)	高(手決)	姜致緣	郭信貴
18	1870 (고종 7)	55	495	219	276	金(手決)	金(手決)	姜營洽	康信祿
19	1873 (고종 10)	55	485	211	284	姜(手決)	吳(手決)	趙斗鎭	姜基太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20	1876 (고종 13)	55	511	225	286	金(手決)	姜(手決)	池益煥	趙吉仁
21	1879 (고종 16)	54	492	215	276	姜(手決)	金(手決)	康信祿	池希源
22	1882 (고종 19)	53	483	214	274	金(手決)	金(手決)	康信祿	趙吉文
23	1885 (고종 22)	57	491	216	274	金(手決)	姜(手決)	趙斗鎭	趙吉文
24	1888 (고종 25)	62	503	222	281	金(手決)	姜(手決)	趙吉文	康信祿
25	1891 (고종 28)	58	456	206	243	高(手決)	金(手決)	池昌昆	林昌國
26	1894 (고종 31)	64	466	212	254	金(手決)	金(手決)	尹致元	康信祿
27	1898 (광무 2)	118	502	229	273	高(手決)	姜(手決)	康信祿	玄才千
28	1899 (광무 3)	118	503	234	269	高(手決)	姜(手決)	姜命官	任昌國
29	1901 (광무 5)	120	513	238	275	姜(手決)	吳(手決)	李才觀	任昌國
30	1902 (광무 6)	120	513	238	275	姜(手決)	吳(手決)	姜永伯	玄才千
31	1903 (광무 7)	120	513	238	275	姜(手決)	金(手決)	趙吉義	任昌國
32~36	광무 8년(1904), 광무 9년(1905), 광무 10년(1906), 융희 원년(1907), 융희 2년(1908)								

11) 廻水里 호구 및 호적작성 관련자

회수리의 호적중초는 총 26책으로 1852년 이후 1905년 호적중초만이 결본된 채 1908년까지 현존하고 있다. 회수리는 약간의 마을 명칭에 변동이 있었다. 즉, 回水里(1858~1867년)→廻水里(1870년)→道文理(1873~1902년 : 1873년 改名 道文理)→廻水里(1903년 이후)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경우도 回水里로 되어 있는 것이 6책, 道文理로 된 것이 14책, 廻水里로 표기된 것이 6책이다.

회수리는 1849년 중문리 호적중초와 비교해 볼 때, 1852년에 행정적으로 중문리에서 分里되어 독자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1849년 중문리 호적중초에 기재된 사람들이 1952년 중문리 호적중초에서는 빠지고, 1952년 회수리 호적중초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61년 회수리 호적중초에 의하면 마을에서 작성해서 관에 올린 호적중초는 新中文리라 되어 있으나, 이를 官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朱書로 回水리라 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민들은 간혹 新中文리라는 마을 명칭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회수리 호적중초는 모두 완전한 상태로 마을회관에 보존되어 있다.

호적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임원으로는 厘正·監考·別有司·尊位 등이 있다. 호적의 말미에 厘正·監考의 경우는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別有司·尊位는 姓만을 쓰고 수결을 하였다. 그리고 1906년 호적중초 이후는 別有司 대신에 警民長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10>은 회수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회수리 호적중초 현황과 호구변화 및 호적작성 관련자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1	1852년 (철종 3)	51	388	191	197	李(手決)	李(手決)	宋興福	高鳳瑞
2	1855년 (철종 6)	46	363	180	183	金(手決)	李(手決)	宋興福	金光祿
3	1858년 (철종 9)	46	367	175	192	梁(手決)	金(手決)	金善良	金光祿
4	1861년 (철종 12)	51	392	182	210	姜(手決)	姜(手決)	姜濟福	李光哲
5	1864년 (고종 1)	53	412	195	217	李(手決)	金(手決)	柳宗良	000
6	1867년 (고종 4)	57	430	197	233	李(手決)	梁(手決)	高漢伯	金才良
7	1870년 (고종 7)	56	459	167	292	李(手決)	李(手決)	高漢伯	李光哲
8	1873년 (고종 10)	53	388	165	223	金(手決)	李(手決)	宋進齊	金信良

번호	年度	戶	口	男	女	別有司 (手決)	尊位 (手決)	監考	厘正
9	1876년 (고종 13)	52	375	164	211	李(手決)	李(手決)	梁明祿	康宗根
10	1879년 (고종 16)	54	384	169	215	姜(手決)	姜(手決)	宋進齊	金光仁
11	1882년 (고종 19)	56	386	167	219	姜(手決)	李(手決)	金信良	康宗根
12	1885년 (고종 22)	58	371	161	210	李(手決)	李(手決)	宋商權	康宗根
13	1888년 (고종 25)	60	378	173	205	李(手決)	金(手決)	金光秀	康宗根
14	1891년 (고종 28)	67	399	178	221	李(手決)	姜(手決)	宋進齊	康宗根
15	1894년 (고종 31)	67	402	194	208	李(手決)	金(手決)	金光秀	康宗根
16	1897년 (광무 1)	59	408	194	214	李(手決)	李(手決)	金信良	000
17	1898년 (광무 2)	48	328	155	173	金(手決)	李(手決)	金(手決)	周弘得
18	1899년 (광무 3)	49	329	154	175	李(手決)	李(手決)	金(手決)	康士得
19	1900년 (광무 4)	48	324	157	167	金(手決)	李(手決)	安(手決)	金宗福
20	1901년 (광무 5)	48	326	158	168	李(手決)	金(手決)	安(手決)	高濟得
21	1902년 (광무 6)	48	321	154	167	李(手決)	金(手決)	林(手決)	金宗福
22	1903년 (광무 7)	48	326	155	171	李(手決)	宋(手決)	池甲用	金宗福
23	1904년 (광무 8)	47	310	145	165	李(手決)	許(手決)	林世祿	金宗福
24	1906년 (광무 10)	47	312	146	166	姜(手決)	李(手決)	林世祿	金宗福
25	1907년 (융희 1)	85	312	146	166	池(手決)	李(手決)	池(手決)	金(手決)
26	1908년 (융희 2)	86	335	159	176	池(手決)	李(手決)	池(手決)	金(手決)

4.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성격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편성체제를 살펴보면, 우선 표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年號 正月 日 干支(해당 식년의 간지)式 戶籍中草」라 쓰고 별행으로 해당 마을을 표시하고 있다.

첫장 1행은 다시 표지의 내용을 기입하고 별행으로 해당 마을의 면리를 표시한 후 오가작통법(1896년 이후는 십가작통법)에 의하여 1통, 2통의 순으로 기재해 나가고 있다. 기재형식은 호구단자와 같이 별행으로 이루어졌다.¹⁹⁾ 作統은 煙家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같은 마을 내에 있어서도 1통 1호를 선점하기 위한 통간에 내분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각 호의 내용은 호주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부·조·증조의 직역과 이름, 외조의 직역·성명·본관, 호주 처의 성씨와 나이, 본관 및 4조부·조·증조·외조의 직역과 이름,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花妾, 奴婢, 雇工, 借入者가 있을 경우에는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각 호마다 남녀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몇 개 호적중초에 나타나는 호적중초의 기재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계리 1822년 7통 4호(齋長의 직역자)

「第七統四戶 前齋長 李宗燦 年六十九 甲戌 本古阜 父 學生 德新 祖 留鄉別監 春芳

曾祖 留鄉別監 應元 外祖 學生 姜時廷 本晉州

妻 姜氏 年六十六 丁丑 籍晉州 父 學生 繼郁 祖 留鄉別監 道順 曾祖 留鄉座

19) 일반적으로 호적대장과 호적중초는 준호구와 마찬가지로 連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계에 소개된 全羅道 南原府 屯德坊 호적중초(전경목, 『古文書研究』 제3집, 한국고문서학회, 1992 참조)의 경우도 연서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호적중초는 모두 별행으로 기재되고 있다.

20) 이는 현재 제주도 북제주군 에월읍 장전리사무소에 소장된 1897년(丁酉) 12월 일의 「立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입의」는 尊位, 警民長, 洞長, 頭民 7명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작통에 의한 마을간의 내분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후에는 연가순에 따라 통호를 배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首 世翊 外祖 留鄉別監 李晚伯 本古阜
 率子 前掌議 東運 年四十八 乙未
 率婦 金氏 年四十六 丁酉 籍金海 父 留鄉別監 穎琛
 率孫子 幼學 漢伯 年二十一 壬戌
 率孫女 氏 年二十三 庚申
 次孫子 幼學 瀛伯 年十四 己巳
 次孫女 年十一 壬申
 率孫婦 池氏 年二十四 己未 父 幼學 瑞鵬
 次子 幼學 東暹 年二十二 辛酉
 率婦 林氏 年二十六 丁巳 父 儒生 光彥
 率姪子 幼學 東範 年三十 癸丑 父 學生 義懌
 率姪婦 文氏 年二十九 甲寅 父 鄉貢進士 昌佐
 生從孫女 年四 己卯
 借入 雇工 金乂 年十四 己巳 父 順奉
 借入 任召史 年六十 癸未 父 業武 再發
 借入 營旗牌 姜復起 年二十九 甲寅 父 留鄉別監 時
 借入 梁召史 年三十八 乙巳 父 儒生 湖濟

十八口內 — 男 七
 — 女 十一

② 중문리 : 1804년 13통 4호(奴婢 기재의 예)

第四戶 留鄉座首 李東新 年五十七 戊辰 本古阜 父 留鄉座首 殷成 祖 留鄉
 座首 漢
 芳 曾祖 留鄉座首 敬元 外祖 留鄉別監 姜遇載 本晉州
 妻 玄氏 年四十一 甲申 籍咸德 父 學生 垂範 祖 學生 昌殷 曾祖 學生 載厚
 外祖 學生 吳命流 本軍威
 率子 留鄉別監 大榮 年四十二 癸未
 率婦 梁氏 年三十七 戊子
 率孫子 宗礪 年十二 癸巳
 率婢 姜德 年二十九 丙辰 父 姜連聖

率婢 金德 年十九 丙午 父 金重昌
率奴 順東 年十二 癸丑 父 金奎彩
率婢 永月 年三十二 癸巳 父 李永得
借入 平役品官 姜興宗 年二十七 戊戌 父 業武 德成

合人口 十內 男壯三 男弱二 女壯五

③ 대포리 : 1807년 3동 2호(妾 기재의 예)

第二戶 留鄉別監 李廷發 年五十二 丙子 本古阜 父 幼學 重新 祖 幼學 彦邦
曾祖 展力副尉兼司僕 東茂 外祖 留鄉別監 姜道熙 本晉州
繼母 玄氏 年四十八 庚辰 父學生 萬普
率子 幼學 榮植 不諭 改名 春植 年十五 癸丑
率婦 吳氏 年十五 癸丑 父幼學 連興
次子 幼學 榮秀 不諭 改名 春秀 年十三 乙卯
率弟嫂 林氏 年三十一 丁巳 父儒生 光彦
率花妾 姜召史 年五十三 乙亥 父良人 仁貴
率女 年六 壬戌
借入 良人 李雄三 年八十六 辛丑年 出陸逃亡 父彦廷

九口內 男四 女五

④ 하원리 : 1810년 1동 2호(私奴婢 소유의 예)

第二戶 前齊長 金運恢 年六十七 甲子 本光州 父 留鄉別監 最良 祖 學生 胤
慶 曾祖
留鄉別監 亨雨 外祖 學生 金再鳴 本金寧
妻 高氏 年六十九 壬戌 籍濟州 父 留鄉別監 受擊 祖 學生 齊 芑 曾祖 學生
世武 外祖 留鄉座首 姜道鳴 本晉州
率子 留鄉別監 德圭 年四十五 丙戌

率婦 文氏 年五十一 庚辰 父 留鄉別監 道元
 率孫女 年十八 癸丑
 生曾孫子 高繼仁 年二 己巳 父 儒生 達連
 次孫女 年十七 甲寅
 次孫女 年十三 戊午
 率孫子 益榮 年十 申酉
 率女 年二十三 戊申
 率庶子 前將官 辰 二十五 丙午
 率妾 任召史 年五十一 庚辰 父 書員 致盤
 率庶孫女 年十七 甲寅
 生庶孫子 貴榮 年二 己巳
 率奴 次同 年十一 庚申 父 良人 取寶
 率婢 十月 年五 丙寅 父 良人 吳命厚 母 同婢 池德
 率婢 金月 年五十 辛巳 父 書員 道令 母 同婢 鄭德

人口 十七內
男七
女十

⑤ 回水里 : 1852년 1통 2호(장의 직역자)

第二戶 掌議 梁學會 年七十四 己亥 本濟州 父 留鄉別監通政大夫 國梯 祖
 留鄉別監
 聖來 曾祖 留鄉別監 進賢 外祖 學生 李世成 本古阜
 妻 夫氏 年七十八 乙未 籍濟州 父 留鄉別監 道哲 祖 學生 行仲 曾祖 留鄉別
 監 萬雄 外祖 學生 金錫祚 本光州
 率子 掌議 以濟 年五十四 己未
 婦 姜氏 年五十九 甲寅 父 鄉貢進士 晚榮
 孫子 幼學 折吉 年十一 壬寅
 次子 幼學 承濟 年四十九 甲子
 婦 吳氏 年四十七 丙寅 父 學生 光新
 孫子 沖吉 年八 乙巳
 次孫女 年五 戊申

生次孫子 洙吉 年二 辛亥
 次子 幼學 永濟 年四十八 乙丑
 次婦 金氏 年四十八 乙丑 父 掌議 榮悅
 孫子 潤吉 年五 戊申
 次子 幼學 源濟 年三十四 己卯
 婦 吳氏 年三十七 丙子 父 學生 仁顯
 孫女 年五 戊申
 庶母 姜召史 年八十三 庚寅 父 學生 嗣宗

十七口內 男九 女八

말미에는 元(原)戶, 인가와 남녀의 통계, 그리고 壯·老·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예외인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도망자 또는 표류자가 있을 때에도 이를 반드시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호적작성에 참여하였던 厘正과 監考는 성명을 기재하였고, 別有司와 尊位는 姓과 手決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에는 해당 관청 수령의 署押이 있다.

관아에서는 일일이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冒錄·冒稱이 있는 경우, 일일이 朱書로 정정하고 후일에 있을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우려하여 각 면마다 관인을 일일이 찍어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冒錄·冒稱者들은 심한 경우, 호적 관리자들과 결탁하여 일정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부분을 다른 종이에 써서 붙여 놓은 경우도 간혹 확인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호적중초는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 1780년대부터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다. 약 130여 년 간에 걸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19세기를 전후한 제주지역의 인구구성, 신분변동, 촌락구조의 성격, 혼인형태 등 향촌사회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근대적 호적법 성립 이후의 호적중초를 통해서도 호적기재 양식의 변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민적부가 호적중초와 함께 리사무소에 보관된 경우가 있어 이와 비교해서 분석하면 전근대 사회에서의 호구과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적중초를 통하여 그 마을의 변천과정뿐만 아니라 해당읍 면리제의 변천

을 엿볼 수 있다. 호적중초에 의하면 덕수리는 1831년 이전까지 자단리라 불리어 왔으나, 1831년에 신당리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신당리는 1840년에 덕수리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67년 호적중초에는 大靜郡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1864년 대정현이 대정군으로 승격된²¹⁾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²²⁾ 또한 덕수리는 대정현의 우면·중면·신우면·중면에 연차적으로 소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호적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을 관아에서 일일이 시정하고 있다. 즉, 나이를 높여 老職을 피하는 경우, 改籤²³⁾을 걱정하여 나이를 낮추는 경우, 신분을 모략·모칭하는 경우 등을 일일이 찾아내어 朱書로 정정하고 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生’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등 타지방의 호적에 비해 16세 이하의 인구파악에 충실하고 있고, 더구나 새로 태어난 인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계 가족이 아니거나 혹은 借入者는 당사자의父를 반드시 밝히고 있다. 장님·병어리·반신불수 혹은 소아마비의 경우 右脚病身·左脚病身 등 신체적 장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호적중초에서만 주로 확인되는 직역명으로 留鄉別監·留鄉座首·掌議·齋長·作吏·奮漢 등이 보인다. 유향좌수와 유향별감은 향청의 주요 직책이고, 장의와 재장은 향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들 직역이 양반임을 상징하는 직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어쩌면 그만큼 제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한 중앙관직 획득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서의 직책과 향직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⁴⁾

21) 『增補文獻備考』職官考, 郡守條 ;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30일조 참조.
 22) 대정현은 1416년(태종 16) 정의현과 더불어 설치되어 거의 변동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864년 8월 30일에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880년 1월 27일에는 다시 현으로 환원되었다. 그 후 1895년 5월 26일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칙령 제98호가 반포되어 다시 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910년에 제주군에 흡수 통합되었다.
 23) 나이 60이 차면 軍籍을 고쳐 그 자식으로 簽丁하는 것을 개첩이라 한다. 이 경우 軍布를 바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나 개첩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그 나이를 낮추어 이를 피했다(『牧民心書』戶典 六條, 戶籍條 참조).
 24) 金東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

작리는 육지 지역의 假吏와 비슷한 성격의 직역으로 임시로 향리의 역을 수행한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답한은 관둔전 경작자를 말한다. 부녀자의 호칭에 있어 氏·召史·姓·女·父·名 등이 사용되고 있다. 女·父·名은 주로 하층 부녀자에게 사용된 호칭이다.

신분구조의 특징은 19세기 후반에 제주도민의 주요한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掌議의 직역을 주로 모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육지 지역이 18·19세기 신분상승의 방편으로 幼學을 모칭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었던 양상과 비교할 때 제주지역이 갖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지방의 신분제는 1801년 공노비 혁파이후 심한 혼호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반신분의 점차적인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지방 신분제 변화의 획기적인 계기는 1801년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호적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임원으로는 厘正·監考·別有司·尊位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호적의 말미에 리정·감고의 경우는 모두 성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별유사·존위는 姓만 쓰고 수결을 하였다.

5. 맺음말

현재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옛 대정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정현이었던 지역의 호적중초로는 대포리 33책, 덕수리(자단리) 46책, 도순리(돌송리) 50책, 동성리(안성리) 38책, 사계리(금물로리) 44책, 월평리 14책, 일파리 52책, 중문리 41책, 하모슬리 43책, 하원리 36책, 회수리(도문리) 26책으로 모두 423책에 이른다. 이 외에도 대정현 일부 마을의 호적중초가 더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많다. 그렇게 볼 때 제주 4·3 당시 리사무소가 불에 타버려 호적이 없어진 경우가 있지만 제주 옛 대정현 지역에서만 600여 책의 호적중초가 남아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적류 및 민적부 등의 호적자료를 포함하면 1,000여 책 이상의 호적중초가 현재 남아 있는 셈이 된다. 방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하루가 다르게 유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계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제주목 지역에서 두루마리 형태로 확인되는 호적중초까지 감안할 때, 학계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한 해가 다르게 없어지는 호적중초들을 빨리 책자로 영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는 제주역사 및 한국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작업이며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호적중초 자료의 전산화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어떠한 호적중초 자료는 제주지방의 가족제도·노비제도·신분제도·인구이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호적중초의 자료적 중요성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한 연구가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호적중초, 대포리, 덕수리, 도순리, 동성리, 사계리, 월평리, 일파리, 중문리, 하모슬리, 하원리, 회수리



■ 참고문헌

- 『大浦里戶籍中草』(대포마을회관 소장).
『德修里戶籍中草』(덕수리사무소 소장).
『道順里戶籍中草』(도순마을회관 소장).
『東城里戶籍中草』(안성리사무소 소장).
『沙溪里戶籍中草』(사계리사무소 소장).
『月坪里戶籍中草』(월평마을회관 소장).
『日果里戶籍中草』(동일리사무소 소장).
『中文里戶籍中草』(중문마을회관 소장).
『下募瑟里戶籍中草』(하모3리사무소 소장).
『河源里戶籍中草』(하원마을회관 소장).
『廻水里戶籍中草』(회수마을회관 소장).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 景仁文化社, 1970.
『濟州大靜旌義邑誌』, 奎章閣圖書 17436.
『濟州邑誌』, 奎章閣圖書 10796.

- 高昌錫, 「해제」,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I)』,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3.
——, 「해제」,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I)』,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金東攄, 「해제」, 『濟州大靜縣下募瑟里戶籍中草(I)』,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000.
梁晉碩, 「解題」, 『濟州河源里戶籍中草(1)』,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2.
韓榮國, 「丹城縣戶籍大帳 解題」,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下)』,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호적대장 연구팀, 「단성현 호적대장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권내현, 「조선 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大東文化研究』 39, 성균관대학교, 2001.
權仁赫,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教學社, 1986.
金建泰,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 丹城戶籍大帳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학교, 2003.

- 金東柱,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歷史民俗學』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 _____, 「19세기 戶籍制 運營의 弊端과 對策 : 제주지방 호적관련 節目을 중심으로」, 『濟州文化研究』, 玄旨金榮敬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編, 1993.
- _____,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 하원·회수·월평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9, 2004.
- 金錫禧, 「朝鮮王朝後期の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에 對하여」, 『釜山大學校 文理大學論文集』 14(인문사회과학편), 1978.
- _____, 「朝鮮後期 慶尙道 彥陽縣 戶籍大帳에 關하여」, 『釜大史學』 7, 1983.
- 金錫禧·朴容淑, 「朝鮮王朝後期の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에 關하여(II)」, 『釜山大 文理大 論文集』 17(인문사회과학편), 1978.
- 朴容淑, 『朝鮮後期 鄉村社會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86.
- 은기수, 「조선후기 인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연구」, 『한국 사회의 신분 계급과 사회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8집, 1987.
- 李榮薰·安承俊, 「1528年 安東府 府北 周村 戶籍斷片」, 『古文書研究』 8, 1996.
- 李俊九, 「조선중기 編戶白丁의 존재와 그 성격」,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2000.
- 林學成,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口文書에 보이는 ‘挾戶’의 성격」, 『朝鮮史研究』 7, 1998.
- _____, 「조선후기 사노비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일연구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인하사학』 3, 1995.
- _____, 「평민가문의 직역변동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사회의 신분제동요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인하사학』 4, 1996.
- _____,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일연구 : 17·18세기 단성호적의 사례분석」, 『국사관논총』 86, 1999.
- _____, 「조선후기 戶籍에 등재된 兩班職役者의 身分 : 1786년도 丹城縣 縣內面의 사례분

석], 『조선시대사학보』 13, 2000.

임학성,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籍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 : 漢城府 주민의 住居 양상을 究明하기 위한 一試論」, 『古文書研究』 24, 2004.

全昶穆,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古文書研究』 3, 1992.

鄭震英,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전망」,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 2003.

정두희, 「조선후기 호적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 101, 한국사연구회, 1998.

鄭鉉在, 「丙午式年(1606년) 丹城戶籍에 대한 기초적 검토」, 『慶尙史學』 9, 1993.

_____, 「山陰縣 戶籍大帳에 대한 一研究 : 丙午式年 戶籍의 수정과 보완」, 『慶尙史學』 14, 慶尙大, 1998.

崔承熙,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1983.

崔珍玉, 「北部帳戶籍」, 『역사분야 연구논문집 '9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分布」, 『大丘市史』 第1卷, 1973.

_____, 「‘豆毛岳’考」, 『韓洵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_____,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_____, 「조선왕조 호적대장의 탐구」, 『한국사시민강좌』 24, 일조각, 1999.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 朝鮮戶籍大帳의 基礎的 研究-19世紀 慶尙道 鎭海縣의 戶籍 臺帳について』,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7.

吉田光男, 「一六六三年『漢城府北部戶籍』に見える身分標識と身分·職役」(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日本 : 山川出版社, 1997)에 所收.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Hojukjungcho in the Areas of Jeju Island in the Late Chosun Dynasty

Kim, Dong-Jun(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confirm where and how many Hojukjungchos exist in Jeju Island and to examine whether they are valuable as historical data. There are many Hojukjungchos left on Jeju Island enough to be called a treasure house of Hojukjungcho. Here we will introduce Hojukjungchos of Daepori, Dongsungri, Duksuri, Sagaeri, Ilgwari, Wolpyungri, Jungmunri, Hamosulri, Hawonri and Hwoesuri. These villages were governed by Dajunghyun in Chosun dynasty when Jeju Island was divided into thre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Jejumok, Daejunghyun and Jungiyhyun. Therefore, most Hojukjungchos in Jeju Island have been found in the areas of Daejunghyun except for Hojukjungchos found in the villages of Doduri, Jangjunri, Jungumri and Sanggari, which were governed by Jejumok in Chosun dynasty.

Hojukjungchos range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They are very valuable historical data in that Hojukjungchos, which were written every 3 years, have contributed to shedding light on the diverse aspects of Jeju society at that time. We can confirm the family system, the social status system, slavery, population movement and the existing form of residents in the areas of Jeju Island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rough Hojukjungchos. When Hojukjungchos a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data in Minjukbu(민적부), we can verify the population in the pre-modern period and various characteristics appearing in the transfer to the modern period.

[Key Words] *Hojukjungcho, Daepori, Duksuri, Dosunri, Sagaeri,
Dongsungri, Wolpyungri, Jungmunri, Hamosulri, Hawonri,
Hwoesuri, Ilgwari*

K C I

투고일 : 2005년 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6월 7일